

2023학년도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2023년 1월 17일(화) 14:00~15:00
- ◎ 회의장소 본관 2층 회의실
- ◎ 참석위원 김길선(위원장, 기획처장)
이강오(학생문화처장)
이재승(기획예산팀장)
정희진(학교법인 차장)
심동주(학부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박철훈(대학원총학생회장)
임원현(유시스투자자문 대표이사)
- ◎ 불참위원 박주영(학부총학생회 비대위부위원장)
민정우(주간MBA원우회장)
- ◎ 배석 이성희(기획예산팀 차장)
오서준(간사, 기획예산팀 과장)

[안전] 2022학년도 추가경정예산, 2023학년도 본예산, 잉여금 처리 원칙 심의

1. 안전 내용

1) 2022학년도 추가경정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본예산	추경증감	추경예산	본예산대비 증감률
교비회계	173,074	13,777	186,851	7.96%

*교비회계=등록금회계+비등록금회계

2) 2023학년도 본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합계	전년대비 증감액
세입	116,282	73,340	189,622	16,548
세출	116,282	73,340	189,622	16,548

* 세입: 등록금, 수강료, 전입 및 기부수입, 교육부대수입, 교육외수입, 자산/부채, 전기이월자금

** 세출: 보수,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예비비, 자산/부채

3) 잉여금 처리 원칙

① 잉여금의 정의

- 본예산에서의 전기이월자금과 결산이 반영된 추가편성예산의 전기이월자금의 차이
- 등록금회계의 전기이월자금을 한함

② 잉여금의 처리 원칙

- 등록금회계에서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명시/사고이월의 경우 해당 직접 교육비 예산으로 편성하고, 기타 이월의 경우 장학금 재원으로 활용
- 일부 장학금 등에 대해서 이월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등록금회계의 예산 이월에 대해서는 철저히 통제하여, 이월금을 최소화하고자 함

2. 회의 내용

1) 현리인성교육원 운영비 관련

학생위원B	현리인성교육원은 시설 운영비가 매년 증가하는데, 그 이유와 개선 방안에 대해 문의함
교직원위원C	현리인성교육원은 기본적으로 '성찰과 성장' 수업을 위해 만든 것인데, 실제 진행을 해보니 학생들이 그곳까지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면도 있고 그 수업을 위해 고정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음. 교내 타부서에서의 사용 수요도 일부 있지만 이런 경우 수업은 내부거래 성격이기에 결국은 비용만 발생하는 구조임. 현재 현리인성교육원은 교육용 기본재산이기 때문에 수익화를 위해 위탁운영이라든가 시설 대

	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어려운 면이 있음을 설명함
교직원위원A	학교에서도 현리인성교육원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그 해결방안을 찾고 있음. 가평 지역의 초·중·고등학교나 군부대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그 대가를 수익화하는 방법 등으로 지역사회와 협의중이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음. 다만 앞서 설명드린대로 수익사업을 위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검토를 받고 있음을 답변함
외부전문가위원	서강 동문들이나 학교에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사용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교육원 이용 후 만족시 기부금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임을 건의함
교직원위원B	사실상 현 상황에서 외부 일반인 대상으로 대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설 투자가 필요함. 또한 주변에 경쟁력있는 타기관들이 많이 있는 것도 고려해야함을 설명함

2) 법인전입금 관련

학생위원B	작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얘기 나왔던 태양광 발전이나 노후빌라 상가 리모델링을 통한 수익 확보로 법인전입금 확대가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인지, 매년 이러저러한 사업들을 해서 전입금을 증가시키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증가분이 없는 것으로 보임. 또한 전입금의 절대적인 규모가 너무 적은 것 아닌지 문의함
교직원위원D (법인)	전입금의 경우 교육부의 승인을 받는 사항인데 재단 재정상황 대비 적절한 금액을 전입하고 있는 것으로 승인받고 있으며, 사실상 재단 입장에서는 최대 규모로 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작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사업 중 일부에서는 수익이 발생했지만, 반면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손실이 난 부분이 있어서 전입금이 기대만큼 증가하지 못했음. 그러나 그 손실 부분도 올해 정리될 예정이므로 내년에는 전입금을 더 증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함
교직원위원A	우리 학교 교육비환원율을 보면 196%정도 되고, 이 수치는 서울 시내 대학들 중 낮은 수준이 아님. 이 의미는 법인에서 전입되는 금액은 다소 적더라도 다른 곳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해서 학생들을 위해 투자하고 있음을 의미함. 따라서 이 지표도 같이 고려해줄 것을 설명함

3) 인건비 및 교수 충원 관련

외부전문가위원	인건비가 27억원 정도 증가했는데, 임금인상 때문인지 대상인원 수가 늘어난 것 때문인지 문의함
교직원위원C	최저임금 인상 등 인상요인이 있지만, 인상은 1%로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음. 교원은 인원을 계속 늘리고 있고 직원의 경우 작년 여름에 임용한 인원들이 올해 모두 반영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증가함을 설명함
외부전문가위원	기업 최고위 임원 출신들의 경우 돈보다 명예에 대한 니즈 때문에 학교 수업을 원하는 경우들이 있음. 이런 분들을 활용하면 학교 인건비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학교 교수님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니 이러한 방식의 채용은 어떨지 건의함
교직원위원A	기업들도 그런 니즈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일부 기업에서는 기업에서 연구하고 학교에서 수업하는 방식으로, 인건비의 절반 이상을 기업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오퍼가 오기도 함. 기업 자체에서도 그런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학교에서도 그분들을 겸임교수로 활용할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제안이라고 보고 있음을 설명함
교직원위원C	교원확보율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결과, 학교 규모에 비해 대학원이 많은 점이 문제라는 것을 파악함. 대학원은 요구되는 교원 수가 더 많기 때문에, 학과별로는 교원확보율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지만 대학원까지 포함해서 보면 전임/비전임 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됨. 부족분을 모두 정년트랙으로 채우기엔 재정상 무리가 있고, 강의전담교수나 겸임교수를 확보하는 식으로 할 수 밖에 없음을 추가 설명함

3. 의결 사항

- 안전에 대해 출석위원 7명 중 7명 찬성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

[법률 준수] 「고등교육법」 제11조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

1. 회의 통지 및 자료 송부

등록금 심의 위원회 개최일	일시·장소·안전 통지일 준수 여부(7일 전)	회의 자료 송부일 준수 여부 (5일 전)
2023.01.17	여	여

2. 소집·개의·의결 관련 사항

구분	현황	비고
소집 요건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의(재적 과반수 출석) 정족수 충족	여	
의결(출석 과반수 찬성) 정족수 충족	여	

3. 위원 정수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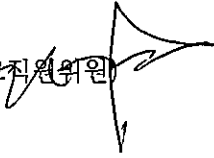
구성단위	위원수	비율	비고
학생	4	44.5%	
교직원	4	44.5%	
전문가	1	11.0%	
합계	9		

* 학생 위원 30% 이상, 구성단위별 비율 50% 미만 준수

2023. 1.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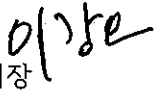
위의 사실을 확인함

위원장 : 김길선 기획처장 (교직원위원)



(교직원위원)

이강오
학생문화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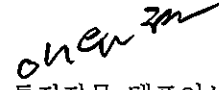
(학생위원)

심동주
학부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외부전문가위원)

임원현
(주)유시스투자자문 대표이사



이재승
기획예산팀장



박철훈
대학원총학생회장



정희진
학교법인 회장

